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영미학과	이름	김xx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도시	파리
파견대학	The American Business School of Paris	파견기간	1.16-5.5
귀국여부	X(7월 3일 예정)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은 파리 10구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역과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노선이 다니는 파리 북 역과도 걸어서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총 3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본관에서 OT와 대부분의 수업이 진행되지만 별관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별관은 본관과 도보 3분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학교 건물은 ABS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닌 IGS그룹에 포함된 학교들이 3개의 건물을 함께 사용합니다. 건물마다 카페테리아가 있고 본관에는 도서관과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을 담당하는 사무실이 있고, 0층에서는 학생들이 다 같이 게임하고 밥을 먹는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주로 18-20세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i>visiting</i> 학생들이 많아 학구열이 높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p>
2023-1학기 수업	<p>모든 수업은 일주일에 한번 3시간씩 수업했고 월요일은 학교가 쉬기 때문에 수업이 없습니다! 8:30-11:30, 12:30-15:30, 15:30-18:30 하루에 이렇게 3교시가 있습니다.</p> <p><i>Critical reading and writing</i>, 이 과목은 시, 연설문 등을 자료로 수업을 하고 수업 자체는 편안한분위기에서 진행되긴 하지만 교수님께서 적극적인걸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수업중간에 기습으로 연극도하고 노래 불러야 하는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수업 중간중간 교수님이 계속 학생 의견 물어보시고 모두가 수업에 참여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p> <p>영어를 못해서 말을 잘 못하더라도 교수님이 정말 친절하게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부담가지실 필요는 없지만 항상 긴장하고 갔었습니다.</p>

중간, 기말고사 다 보고 시험은 좀 어려운 편이에요!

별개로 팀원들끼리 토론을 하는데 이 점수가 전체 성적에 25%를 차지해요! 교재는 없고 교수님께서 수업 전에 파일을 올려 주셔요!

The fashion business revolution

우선 이 수업은 패션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패션의 역사와 마케팅방법에 배우지만 배우는 양이 상당히 많고 중간, 기말시험 중간발표 기말발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수업입니다. 교재는 없고 PPT를 올려 주시지만 매수업마다 나가는 PPT 분량이 5-600장 정도이고 PPT에는 그림들만 올려 주시고 글은 거의 없어서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시험 공부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히 추천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History of arts, literature and photography

이 수업은 파리에 교환학생을 왔다면 들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와 팀플 발표가 있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발표도 아니고 팀원들도 다 짜 주시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팀플입니다! 수업 중간에 발표를 시키지도 않으시고 15번 수업 중에 5번정도는 오르세와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미술관을 가면 미술관 오픈시간전에 들어갈 수 있어 사람 없는 오르세를 즐길 수 있어요!

기말고사는 분량이 많긴 하지만 교수님이 시험 전주쯤에 기말고사 범위를 다시 짊어주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으셔서 얘기를 듣는 것도 재밌었고,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항상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Sales techniques for luxury brands

이 수업은 교수님이 실제로 명품매장에서 ambassador로 근무하셨었고 그때를 바탕으로 명품브랜드의 판매기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3번정도 온라인 수업정도로 진행되어 학교에 가지 않고 수업을 듣는 날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과제로는 직접 명품 브랜드에 가서 잠재적 손님인 척을 하며 옷들을 피팅하고 음료를 대접받으며 직원의 태도와 매장의 분위기 등등을 레포트로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과제가 정말 떨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의미 있는 과제였습니다. 수업 중에 한번은 교수님과 함께 디올 갤러리에 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과제를 제출합니다. 시험은 어려운 편이 아니었고 기말과제는 분량이 많아 힘들었지만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p> <p>OT는 3일에 걸쳐 진행되지만 2일만 가도 됩니다! 첫날에는 본관 강의실에 모여서 성적관련 수업 관련된 것들을 설명해주고 다른 교환학생 친구들과 아이스브레이킹시간을 가지고 점심을 제공해줍니다! 둘째날에는 보트트립을해요! 센강에서 보트를 약 2시간 정도 타고 보트에서는 딱히 설명보다는 그냥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시간으로 좋아요.</p> <p>본관 5층에는 visiting학생들을 담당하는 BERGESE Marinella사무실이 있고 교환학생 준비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과 함께합니다! 매일 답장도 정말 빠르시고 세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세요.</p> <p>학기중에 두 번 정도 본관 5층에서 학생회에서 빵과 음료를 제공해주기도 해요.</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저는 1월중순부터 5월중순까지 파리에 있었는데 반팔은 거의 안 입었어요. 3월까지는 5-6시만 되어도 정말 깜깜했고 4-5월부터는 8-9시정도까지는 해가 있었어요. 3월까지의 패딩 없이 다니기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제 기준 한국보다 훨씬 추웠어요.</p> <p>가져간 여름 반팔은 거의 못 입고 왔어요. 개인적으로 히트택이 여기서 정말 비싸기 때문에 사 오는걸 추천 드립니다! 비도 소나기처럼 자주오기 때문에 우산도 항상 지니고 다니세요 !</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파리가 소매치기가 정말 심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전했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가 많긴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위협적이지는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는 소매치기가 자주 발생하니 꼭 조심해주세요! 특히 탈 때 소매치기 무리들이 한번에 타 혼란을 주며 가방에서 빼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방심하지만 않으신다면 소매치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숙소</p>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O) 기타()</p> <p>학교와 연결 되어있는 기숙사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기숙사 혹은 월세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파리는 집 구하기가 정말 정말 어려워요. 저도 집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교환학생 합격하자마자 집을 구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구한 건 출국 한달 전이었습니다.</p> <p>저는 CLUT의 사설 기숙사 중 하나인 La Vigie라는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기숙사는 파리 중심인 4구에 위치해 있고 집 바로 옆에 센강이 있습니다. 도보 3-4분 정도에 Pont marie(7호선) 지하철역이 있어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학교까지 15분정도면 한번에 가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센강 바로 옆이고 기숙사는 ill-saint louis라는 강으로 둘러싸인 부촌이어서 밤에도 안전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기숙사에 사감분들이 항상 계시고 열쇠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서 안전했습니다.</p> <p>숙소는 1인실,2인실이 있고 저는 2인실에 거주했고 방에는 세면대만 있고 복도에 공용화장실과 공용 샤워실이 있습니다. 한층에는 3개의방, 6명이 거주했고 운 좋게 한국인 룸메를 만나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2인실이여도 방구조가 조금씩 다른데 제 방은 생활패턴이 다른 사람과 지내기에는 너무 좁고 침대가 나란히 있어서 힘들 것 같았어요. 기숙사 내에 공용주방이 있어 직접 음식을 해먹을 수도 있고 3.5유로를 내고 세탁기 건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p> <p>기숙사 내에서 연극 보러 가기, 암벽등반, 화장품 만들기, 중국음식체험 등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매달 5-6회 정도 진행해 기숙사 친구들과 친해지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점이라면 관리자분들이 영어를 거의 다 못하셔서 소통이 원활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추천합니다! 가격은 2인실기준 매달 588유로이고 보증금은 398.5유로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O) 직접 요리 (O) 기타 (O)</p> <p>기숙사의 가장 좋았던 점은 평일에 아침과 저녁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아침은 프랑스식으로 시리얼, 우유, 바게트, 잼, 잠봉, 치즈, 계란, 커피, 쥬스등을 아침 배식해주는 분께 하나씩 말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은 프랑스 가정식이고 급식 받듯이 받으시면 됩니다. 메뉴는 주로 육류혹은 생선이 고정으로 나오고 파스타 혹은 무스 야채 등이 곁들여 나오고 디저트와 과일도 항상 나옵니다. 기숙사에 주방이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 끼니를 때울 수 있어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리는 외식물가는 비싸지만 마트는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딱히 파리에서 맛있는 음식점들이 없기도 해요!</p>

교통	<p>파리에 한학기만 머무시는 거라면 나비고를 한달 권(약80유로)씩 충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1년정도 거주하시는 거라면 학생증을 들고가 지하철역 인포에 가서 1년짜리 나비고(약300유로)를 만드시는 게 저렴합니다! 학교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했고 파리의 버스는 등교시에는 추천하지 않아요! 파리는 보행자 신호가 빨강이여도 차들이 양보해서 먼저 건너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간다면 예상 시간보다 늦게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만 타는 걸 추천 드려요.</p> <p>프랑스는 소도시들이 정말 예뻐요. 특히 남 프랑스와 노르망디 지역을 가보시는 걸 정말 추천해요! 소도시까지 가는 건 기차표가 매우 비쌌다 ππ 하지만 만25세까지는 tgv max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tgv max는 매달 79유로를 내면 소도시를 공짜로 제한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소도시 한번 가는데 왕복 100유로는 드니 tgv max를 가입해 한달에 하나의 도시만 가도 이득이에요! 가입조건은 한번 가입후에 최소 3달은 유지해야 하고 1년이내에 해지비 15유로를 내야 하지만 저는 이걸 가입해서 10개정도의 도시를 갔다 왔고 정말 좋았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 드려요</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인천-파리(아시아나 직항) 80만원 런던-인천(대한항공 직항) 125만원	
Fees	X	
보험료	인슈플러스 18만원	
숙소	82만원*5개월	
식비	한 달 약 70만원*4	
교통비	나비고 12만원*3 Tgv max 11만원*3	
책값	X	
기타1	Free 유심 3만원*4	
기타2	X	
합계	약 100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리는 몽쥬약국에 삼푸, 스킨로션, 치약 등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저렴한 가격에 팔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가져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옷들도 자라나 h&m에서 비싸지 않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캐리어 공간이 넉넉하지 않으시다면 적당히 챙겨 오셔서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방법도 추천해요! 가져오길 잘한 것들은 수건과 속옷들 수저세트, 양말, 잠옷 꼭 넉넉하게 챙겨주세요! 특히 수건 정말 정말 비싸요 하나에 2-3만원 정도예요 π 꼭 챙겨오시는 걸 추천 드려요! 여분의 지퍼백과 밀봉클립 가져오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거예요! 참고로 파리는 겨울에 정말 춥기 때문에 작은 전기장판 챙겨 오셔도 좋아요! 히터가 아닌 라디에이터로 방을 덥히기 때문에 밤에는 정말 추워요! 저도 추위를 많이 타는편은 아닌데 5월까지 전기장판 키고 생활했어요.

그리고 파리사람들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초 영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파리에 오니 어느정도 불어를 조금은 공부하시고 오면 편리하실거예요 !

그리고 프랑스는 행정처리가 정말 느려요. 꼭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현지계좌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n26계좌가 유지비도 안들고 애플페이도 실물카드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 드립니다! 대신 충전은 모인어플 이용해서 계좌이체식으로 해야 합니다.

유심은 한국에서 미리 사오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싸요. 저는 하루정도 로밍해서 데이터로 구글지도 보고 유심 개설하는 곳 가서 유심사고 핸드폰 정지시켰습니다. Free유심 한달에 19.99유로에 프랑스 내에서 210기가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유럽 국가 여행하실 때도 25기가 까지는 무료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파리에 교환학생 신분으로 와서 누릴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았어요. 대부분의 박물관이 무료였고, 학생할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수업방식과 시험이 신기했고, 암기위주의 시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목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정해진 답변이 아닌 어떠한 개념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존중하며 답변을 쓰는 시험을 보며 제한없이 제 생각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왔다면 즐기지 못했을 파리의 생활은 원없이 누릴수있었고, 정말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교수님과 오르세에서 수업하는 날



기숙사 친구들과 루프탑 파티



기숙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교수님과 디올 갤러리에서 수업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아침



학교 본관 교실